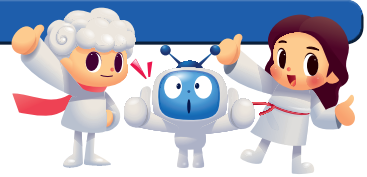




cpbc 라디오 FM105.3MHz | 스마트폰 어플 cpbc 뽕

안녕하세요. 저는 cpbc의 사랑스러운 캐릭터 '우리'입니다.
오늘은 cpbc FM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소개해 드릴게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 <행복을 여는 아침>

진행: 김지현 ANN | 제작: 조준형 PD | 일사: (월~토) 8시~9시



• '삶에 여유를 찾자' -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 10계명 中

매일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시간에 쫓겨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느라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cpbc 라디오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 여유 있는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요?

•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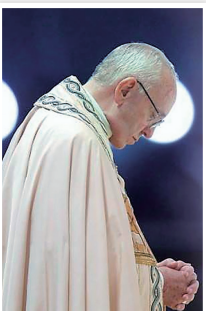
'행복을 여는 아침'은 주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김덕재 신부의 말씀쑈쑈'에서는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가 한 주의 복음 말씀을 정리해 복음화를 위해 새겨야 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쑈쑈 심어드립니다.

• '예수님께서는 바로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제29차 청소년 주일 담화 中

매주 화요일 코너, '바티칸 소식'에서는 로마 예수회 이진현 라파엘 신부가 바티칸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또 토요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심쿵강론'에서 통번역사 정진영 씨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슴 따뜻해지는 강론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우리는 함께 미래를 건설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TED 강연 中



'행복을 여는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아침기도해주세요'는 청취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고 가장 아끼고 즐겨 부르는 성가와 노래한 소절까지 어우러지는 '내 마음의 성가'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교회는 관리자가 아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2016년 8월 14일 삼중기도 中

매주 목요일 코너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에서는 리포터가 직접 취재한 다양한 본당의 소식을 살아 숨 쉬는 현장음과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식만으로는 아쉬울 여러분을 위해 매주 금요일 코너 '땅끝까지 외쳐라'에서는 열정과 땀으로 해외 사목을 하고 계신 신부님들의 해외 선교 현장의 소식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가톨릭의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음의 기쁨의 순례자로 여러분에게 갑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칠레, 페루 사도적 순방 사전 영상 메시지 中



이와 더불어 매주 금요일, '행복한 성화 읽기'를 통해서 배우·화가 김현정 작가의 설명을 통해 성화가 담고 있는 그림의 의미를 함께 읽어볼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보면서 듣는 새로운 라디오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내용, 유쾌한 진행, 아름다운 생활 성가가 함께하는 '행복을 여는 아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스마트폰 앱 '뽕'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cpbc뽕 ios

cpbc뽕 Android



QR코드를 촬영하면
앱 'cpbc 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